

예 배 순 서

인도자: 가족 중

Thanks GIVING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2)



목 상 기 도 인 도 자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시편 100:4)

찬 송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 같 이
(찬588/통307)

기 도 가 족 중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후,
가족 중 한분이 마무리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기쁜 일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이어지는 삶이 거룩함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욥기 23:8-14 다 같 이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
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
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말씀과 교훈 어려움 가운데에도 드리는 감사 설 교 자
기 도 설 교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든지 항상
선하게 대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가족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 이
(찬559/통305)

※가족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정성껏 헌금하였다가
주일예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폐 회 친교의 시간

어려움 가운데에도 드리는 감사 (욥 23:8-14)

미국에서 로드 트립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텍사스의 광활한 광야를 운전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텍사스 광야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다음 마을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자동차의 기름이 바닥을 드러내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높은 하늘을 쳐다보며 아득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본문의 욥은 저보다 더 절망적이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재산, 자녀, 건강을 잃고,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봐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뵈올 수 없는”(8-9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도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욥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직면하였을까요?

1) 욥은 고난을 단련으로 여겼습니다.(10절)

10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 오리라”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때에 우리는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경기 중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승에서 떨어진 그가 끝까지 코스를 달립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완주한 선수들은 많은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고난이 있겠는가 착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허락 하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믿는 자의 삶에도 고난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꼭 손해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온전하게 빚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단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할 때에, 고난이 주는 유익을 함께 거두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중에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2) 욥은 항상 의롭고 선한 길을 택하려 하였습니다. (11-12절)

11-12절에서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자신도 의의 길, 선한 길을 따라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드리는 감사 (욥 23:8-14)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의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저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며, 성도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단련이 아닌 그저 고통스럽기만한 과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올바른 길, 선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성도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3) 욥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13-14절)

13-14절에 보면, “그 분의 뜻은 일정하시며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계획의 변함없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J. 갈브레이드는 이 시대를 일컬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까닭에 현대인들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계획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Thanksgiving Day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신앙의 선배 욥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1) 고난을 단련으로 여기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2) 감사함으로 의롭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3)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미래에 주실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